"전시상황… 초전박살·보복 응징 해야"

한나라 의총서 강경 발언 쏟아져… 軍 수뇌부 경질론 대두도

홍사덕 "상황 오도한 靑 참모 해임해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 한나라당 내 보수적 의원들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국회에서 24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서 안상수 대표는 "북한의 잔인무도한 공격은 전쟁행위로 추가 도발 시 몇 배 응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무성 원내대표도 "준전시상태인 만큼 국회는 추가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광호 의원은 "북한에서 포탄이 한 발이라도 날아오면 모든 화력을 동원해 초전박살, 초토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주변에선 "옳소"라는 동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허술한 대응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광호 의원은 의총에서 "일선 군 지휘관이 위로부터 뭔가 지시가 있지 않을까 눈치보느라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군수뇌부를 100%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의원은 "'확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국민은 무기력하다 못해 분노했다"며 "대응순서가 엉망인 국가가 무질서를 양산하는 만큼 이도 저도 아닌 정부의 원칙을 점검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명진 의원도 "군 지도부나 청와대가 확전을 하면 안 된다. 다음에 하면 몇 배로 응징한다는 이따위 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병대 출신 홍사덕 의원은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포격 직후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 "X자식들"이라고 표현한 뒤 "응징할 사람을 응징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해임하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남갈등으로 정부 부처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책임을 묻기에 이르다"고 밝혔고, 정해걸 의원은 "확전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뜻인데 왜 처벌을 얘기하느냐"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무성 원내대표는 "비분강개의 마음은 똑같지만 오해될 발언에 대해선 우리 모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정부와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이 다시는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내 이공계 의원들과 오찬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큰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차별 포격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수단과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교·군사적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가 보인다면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폭격 현장 살펴보는 손학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4일 오후 최고위원들과 함께 연평도 폭격현장을 찾아 흔적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왜 하필 이때…" 민주, 정국 대응 부심

"北 대포에 대포폰 묻혔다" 한탄

4대강 저지 투쟁 등 차질 불가피

예고 없는 북풍으로 민주당이 곤혹스런 모습이다.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을 쟁점화하며 국정조사 관철 투쟁에 나섰는데 북한의 무력도발로 정국이 급변하면서 '대포폰 게이트'는 물론 4대강 사업 저지 투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게 된 것이다.

이번 연평도 폭격이 지난 천안함 사태처럼 장기화되면서 모든 쟁점을 흡수해버릴 경우 민주당이 그동안 들여온 노력이 허사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아야할 처지가 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날 오후 북한의 도발 소식에 장외투쟁을 중단한데 이어 24일에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기조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초당적 협력 자세를 유지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무력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대북 규탄결의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안보 이슈가 갖는 민감성 외에도 천안함 사태 때와 달리 이번에는 북한의 도발이 명백하다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북한의 대포에 대포폰이 묻혔다"며 아쉬움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민주주의와 민생은 안보문제와 별개"(손 대표), "청와대 사찰 문제에 대한 고삐를 놓지 않을 것"(박지원 원내대표)이라는 발언은 투쟁동력의 급격한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특히, 국회에서의 '100시간 농성'을 마치고 2단계로 서울광장 농성에 들어가면서 장외투쟁의 선봉에 섰던 손 대표는 당분간 투쟁을 중지하면서 두 번씩이나 북풍의 피해를 보게 됐다.

손 대표는 대권 도전을 앞두고 나선 '민심대장정' 마지막 날인 지난 2006년 10월9일에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친 2006년 6월30일부터 100일 동안 탄광 광부, 일용직 막노동 등을 마다하지 않고 민심탐방에 나서면서 2006년 정치계 최대 히트상품을 만들었지만 북풍이라는 초대형 이슈에 묻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손 대표는 당분간 다른 현안과 관련된 대외 행보는 자제하면서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이날도 연평도 폭격 관련 행보만 소화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시멘트·의약품 전달 중단

대북 수해지원 잠정 유보

24일 개성공단 방문 금지

통일부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적십자사(한적)의 대북 수해지원을 잠정적으로 유보한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적십자사(한적)가 북한 신의주에 전달 중인 대북 수해지원물자의 전달을 오늘부터 중단하기로 했다"며 "반출 대기 중인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자에 대해서도 반출을 중단하도록 각 단체에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5·24조치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승인했지만 어제 북한이 우리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일단 승인했던 물량에 대해 반출을 중단하도록 했고 그 이후는 진전상황을 봐가며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달을 위해 현재 단둥에 대기 중인 물량은 3700t의 시멘트와 5억8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이라며 "이 물품의 전달도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아울러 24일 하루 동안 우리 기업관계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이던 495명의 방북은 불허됐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돌아올 예정인 63명의 귀환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통일부는 24일 상황을 본 뒤 개성공단 방북 제한을 추가로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764명이다.

/연합뉴스

여야, 대북규탄 결의안 '진통'

"한반도 평화 구축 대화 촉구" 이견

북한의 연평도 폭격 사태에 대한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24일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25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데는 합의를 이뤘으나 구체적 내용과 처리 방식에 대해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갈등의 해심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민주당은 결의안에 넣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문제의 문구를 빼고 한나라당의 입장에 가까운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에서 통과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포 사격 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전협정,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한, 국민의 안정을 위협한 명백한 무력 도발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방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5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어 '평화체제 구축'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국방위 결의안과 함께 본회의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외통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의 집권 민주당과 자민당 등 야권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자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24일 낮 국회에서 만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문안조정 등을 거쳐 이르면 25일 여야 만장일치로 비난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孫 "사태 수습 우선… 대화로 풀어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남북 모두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과잉대응하면 안 된다"면서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쁜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데 일단 발생하면 잘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측에 대해 "무력도발과 핵무기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평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남북동포의 선의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며 벤자민 프랭클린의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도 없다"는 말을 인용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편가르기에 나서거나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며 "긴장을 고조하고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불안만 가중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의 이성적 대응을 주문했다.

손 대표는 나아가 "정부여당이 정치적 악용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행여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가 청와대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지가 약화할 것으로 생각지 말라. 이것은 정쟁이 아니다. 안보와 민주주의, 민생복지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0년형 금영이 만든
새로운 DVD노래방

가정에서 노래방, 영화, 음악감상, 찬송가까지 부르는 즐거움, 보는 감동까지 느낌이 다르다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노래방기기 1등 기업인 금영은 최근 가정에서도 노래방과 똑같은 환경으로 즐길 수 있는 2010년형 'DVD 노래방기'를 출시했다. 노래방에서와 같이 큼지막한 가사와 고화질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보며 2개의 마이크로 두엣 곡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 노래 곡 수도 시중 노래방과 같은 수준인 2만8000곡으로 국내 최대곡이 내장돼 있다.

일반 대중가요는 물론 트로트·팝송·일본가요 등이 들어있고 초등학교 동요도 수록했다. DVD 플레이어 기능이 있어 고화질 디지털 영화 감상과 음악 감상도 가능 하여 가정과 업소용 모두 만능 제품이다.

▶ 효도선물 1위 금영 노래방

이 제품은 노년에 쓸쓸한 부모님 효도 선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다. 연말 연시 가족모임이나 생일파티 등에 안성맞춤이다. 해외 교포 선물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 정품마이크 2개, 대형 리모컨, 노래책자 제공

구입문의 02-522-4355

성공한 남자의 손목에는 언제나 JAKAL-

'35년 전통' 수공예 명품시계

오성코리아는 최근 35년 전통의 겔런트 시계가 야심차게 만든 100% 수공예 시계 '쟈칼 핑크골드 빅워치'를 출시했다. 300점만 한정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가격대비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우선 디자인이 수백만원대의 해외 명품시계 못지않다. 도금부터 옐로우 골드가 아닌 핑크골드로 처리해 세련미를 더했다. 미네랄 라운드 강화유리를 채용해 스크래치 걱정이 없으며 최고급 소가죽 밴드를 사용했다.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판과 버클과 밴드에 쟈칼 로고를 새겨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철저한 A/S도 장점이다.

300점 한정 생산 판매
자동기계식 명품시계

기능도 한 층 강화됐다. 일본 완제품 자동 무브먼트와 기계식 작동원리를 채용했다. 날짜와 요일표기는 물론 년·월·일 표기, 낮과 밤 표기 기능까지 채용해 활용성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300대만 한정 생산하는 제품으로 희소성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디자인과 기능이 뛰어나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며 "남자의 멋을 한층 돋보이게 제작 됐으면서 정장은 물론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MADE IN KOREA〉
02-522-7667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지
◆등록번호 616-81-68236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고흥)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 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99,000원)
잠수함, 유람선,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목포 출발 "목카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9시 또는 14:30)출발-호텔1박
· 2일째 :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6:50)출발(단, 일요일은 16:30출발)
★ 출발일 : 매일 출발
★포함내역 : 왕복선박,숙박2박(4인1실),조식2회,중식2회, 석식2회,차량료,입장료,주차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 녹동 남해고속터미널(9:10)출발-호텔1박
· 2일째 :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7:10)출발
★ 출발일 : 매일 출발(일요일 별도 문의)
★포함내역 : 왕복선박,숙박2박(4인1실),조식2회,중식2회, 석식2회,차량료,입장료,주차료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한라산 등반 15,000원

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주중+주중)
179,000원(주중+주말)
※ 유류 할증료 별도,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제주 올레길 스페셜 투어 1일 15,000원

[1박 2일 목카투어]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 4일 목카투어] 119,000원 (한라산등반 + 2일 제주관광)
[2박 3일 목카크루즈 + 항공투어] 129,000(주중) / 149,000(주말)

"목카렌트카투어" 107,000원 (4인 기준)
★일정 –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09:00)출발 – 제주항 도착 – 호텔 1박
· 2일째 : 자유관광 – 호텔 1박
· 3일째 : 자유관광 – 제주항(17:30) 출발
♠ 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

● 농 협 ● 정정아 1079-12-183903
배편, 호텔, 펜션, 렌트카 예약

문의 :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 www.jejumt.net | 협찬 남해고속 씨월드고속훼리